

전북농기원, 한약재 천문동 재배기술 개발 농가 소득증대 수입대체효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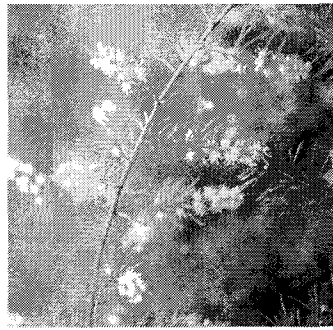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약재 천문동(天門冬)의 재배기술이 개발돼 농가 소득증대와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무분별한 채취와 낮은 발아율 등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천문동의 식재 시기 및 거리, 시비량, 수확시기 등 재배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천문동은 씨앗 껍질이 3겹이나 되고 매우 단단해서 야생상태의 발아율이 극히 낮아 도내에서는 부안군 등 일부 농가에서 소량 채취하고 있을 뿐이며 근래에는 남획으로 거의 멸종상태에

이르렀다.

도 농기원은 이같은 사정을 감안, 보관 중인 씨앗을 활용한 종자 증식법을 찾아내며 이어 토양과 기후에 알맞은 재배기술을 개발했으며 내년에는 장수군 등 일반농가에 시범보급할 계획이다. 도 농기원 관계자는 "천문동은 연간 수입물량이 100여t(약 30억원)이 넘는 다"며 "까다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재배기술이 개발돼 수입대체 효과 및 농가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문동은 백합과의 다년생 식물로 고구마처럼 생긴 뿌리는 기침과 담을 해소하고 해열·강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약재로 널리 쓰이고 있다.

생약자원개발사업 진행

충남농기원, 4품종 보급

충남도농업기술원(원장 우인식)이 2001년부터 추진한 생약자원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 가을 4개 품종 종자 100kg을 농가에 시범 보급한다.

도농업기술원 생약연구팀은 최근 지난해까지 가능성 생약자원 500종을 수집하고 220여종의 특성 검정을 마쳤으며 4작목 78계통의 생리활성성분을 검정한 결과, 우수품종인 절명자와 시호·길경·맥문동 등 4개 품종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생약연구팀 한승호 연구사는 "보급후에도 재배법을 비롯한 기술지도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분말대신 '유안' 사용 비용 덜들고 품질 향상

홍화를 재배할 때 효과적으로 황을 사용하는 방법이 개발됐다.

충북도농업기술원은 홍화 재배시 황분말 가루 대신 유안을 밑거름으로 주거나 물에 희석시켜 꽃피는 시기에 뿌려주면 수량도 높아지고 경제적이라고 밝혔다.

밑거름으로 황을 줄 때는 10a(300평)에 유안 33kg을 뿌리면 된다. 이 경우 유안에 질소 성분이 함유돼 있으므로 질소질 비료를 줄 때는 유안으로 제공되는 양을 고려해 부족량만 주도록 한다.

밑거름을 주는 시기를 놓

쳤을 경우엔 생육 중에 엽면 시비를 통해 유안을 공급해도 된다. 10a에 8.3kg의 유안을 농도 0.5%가 되도록 물에 희석해 꽃피는 시기 전후로 네차례에 걸쳐 살포한다.

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홍화를 재배하는 농가는 홍화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관행적으로 황가루를 사용하고 있는데,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데다 비료 활용도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김민자 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는 "유안은 황분말보다 가격도 저렴해 경영비 절감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043-219-2638.

삼백초 5cm간격으로 밀식 상품성있는 잎 더욱 늘어나

삼백초 재배 때 관행보다 배게 심으면 상품성 있는 잎 수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농업기술원은 삼백초를 재배할 때 폭 40cm 이랑에 모종을 5cm 간격으로 아주심어 밀식 재배하면 20cm 간격으로 심는 관행 재배 때보다 상품성 있는 잎 수량이 훨씬 증가한다고 밝혔다.

도농업기술원이 삼백초 1년생을 이같이 밀식재배한 결과, 10a(300평)당 상품성 있는 잎 수량은 191kg으로 관행 재배때의 164kg에 비해 27kg 많았다. 모종을 10cm로 했을 때는 169kg, 30cm로 심었을 때는 159kg이었다.

남상영 농업연구사는 "삼

백초를 밀식재배할 때는 밑거름을 충분히 준 다음 4월 10일쯤 파종하고 생육상태에 따라 웃거름을 주는 것이 좋다"며 "삼백초는 번식력이 강해 농약이 전혀 필요없고 김매기만 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삼백초는 5~8월에 꽃이 피는데, 잎과 줄기, 뿌리 모두를 나물이나 약초로 활용한다.

☎043-219-2637.

한약재 이용 천연염색 교육

충남 당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동)는 최근 농림부산물을 활용한 천연염색 교육을 지난 2월25일부터 오는 10월까지 13회에 걸쳐 실시한다.

군농업기술센터는 2월25일부터 3월31일까지 6회에 걸쳐 각종 농림부산물과 한약재를 이용한 염색법을 교육한 뒤 5월과 10월엔 학생 및 도시인 등을 대상으로 손수건 또는 스카프 염색실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야생초를 활용한 염색교육을 6월 17일·24일, 7월1일 등 3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들어 농촌지역에서 천연염색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천연염색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천연염료의 채취, 염료 추출, 염색 실습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말했다.

☎041-350-4111.

中國에 유리온실 건설계약

경남무역, 흑룡강성일대 9,000평규모

중국에 한약재 생산용 인공지능 유리온실을 짓기로 한 계약을 경남도 설립 (주)경남무역이 최근 낙찰받은 데 대해 환영과 우려의 상반된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4일 김혁규 경남도지사와 손민해 중국 성중그룹 총재가 배석한 가운데 (주)경남무역과 성중그룹은 190만달러짜리 유리온실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 유리온실은 3만㎡(약 9,075여평) 규모로 하이룽장성(흑룡강성) 일대에 건설될 예정으로, 올 3월 초 착공해 120여일간 일정을 거쳐 6월 말 완공

될 예정이고 재배작물은 한약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사 참여업체는 김해 소재 (주)현대그린하우스인데 첨단 유리온실 시공 기술력과 공사 경험을 인정받은 결과이며, 경남도의 해외시장 개척 성과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농가들은 해외시장 개척은 환영할 일이지만 중국에 수출된 최첨단 인공지능 유리온실에서 재배된 농산물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055-267-3800.

등굴레 신품종 '건강백세' 개발

2005년 농가보급 계획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등굴레 신품종이 개발됐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원내 약초연구팀이 지난 93년부터 전국에 자생하는 816개체의 등굴레를 수집하고 품종별 특성검정과 지역적응 시험을 연구한 끝에 우량품종을 개발하고 '건강백세'로 명명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건강백세는 잎마름병 등 병해에 강한데다 뿌리가 굵고 생산량도 많아 300ha의 산간휴경지 등에 벼 대체작목으로 심을 경우 ha당 1천만원 정도의 소득이 예상돼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등굴레는 백합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봄에 어린잎과 뿌리줄기를 캐어 먹는데 밀린 뿌리줄기는 강

장강정과 치한, 해열등에 효과가 있으며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 작용도해 장기간 복용하면 안색, 혈색이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기원은 오는 2005년까지 건강백세의 뿌리를 30t까지 증식한 뒤 희망하는 도내 전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안성 죽산일대

'지황' 주산지로 부상

경기 안성시 죽산면 일대가 한약재인 지황 주산지로 새롭게 떠오를 전망이다. 죽산농협에 따르면 특별한 주작목이 없는 관내 농가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으로 지황 재배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협은 한국생약협회 등 관계기관을 통해 지황 원산지인 중국으로부터 종구 수입을 추진중이며, 생산한 지황의 판로 개척을 위해 제약회사와의 협의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황은 뿌리를 생것은 생지황, 건조시킨 것은 건지황, 찌서 말린 것은 숙지황이라고 부르는데, 이들 모두 허약체질 개선이나 성인병 예방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돼 있다.

자원식물학회 학술발표회

한국자원식물학회는 오는 4월25일 중부대학교 건원관 금산홀에서 2003년도 춘계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자생식물로 천연농약 개발

강원도농업기술원

국내 자생식물에서 추출한 물질이 천연농약으로 개발될 전망이다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강원도농업기술원이 농약 대용물질로 선발한 자생식물은 닭의장풀·오이풀·애기수영·쇠뜨기 등으로, 이들 식물체의 추출물을 일반 산나물류의 흰가루병과 곰취의 진딧물 방제시험에 이용한 결과 80%와 60% 수준의 방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033-243-1823